

## 집

### House

김기석 / 건축사사무소 아람마당  
by Kim Ki-Seok

처음에는 집이 있었다.

내게 있어서 집이란 신화와 같은 것이었다. 역사는 신화에서 출발한다. 나는 집에서 태어났다. 집은 나를 키웠다. 자라나면서 나는 새로운 집, 나만의 집을 꿈꾸었다. 집은 꿈꾸는 것이었고 그리는 것이었다. 집은 위대한 자아(自我)였다. 한 자아에서 태어나 알궃질을 깨고 더 큰 자아를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니던가.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다. 질주하던 나에게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 것이다. 그 끝 벽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 위대한 자아란 없다!

그 벽을 뚫고 자기소멸을 향한 길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였다. 신(神)이 사랑이라면 그것은 신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 때, 집은 어디에 있는가?

집은 집을 떠나는 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아픔이 있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픔을 찬양하는 자는 없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함부로 집어 내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그렇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아주 작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 속에는 사랑이 없게 마련이니까. 사랑은 부풀리면 증발한다. 늘이면 사라지고 증식시키면 증오로 변한다. 사랑은 탐욕이 비어 있는 틈에 고이는 희귀한 빛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벼랑 어디에 탐욕의 바위가 버티고 서 있지 않은 곳이 있었던가?

한 방울의 빛나는 액체는 바위 틈새에서 새가 되고 새는 벼랑 곁을 날다 떨어져 죽는다. 우리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굵은 자국들은 그 비상의 궤적들이다. 아직도 고운 노래가 되어 있어 깊은 밤 한 구석을 울리고 있는 그 섬세한 슬픔의 소리를 나는 듣고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나!

나는 해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미학적 논리를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이슈를 요구하는 시대적 동기를 이해할 수는 있다. 문화현상은 집단무의식의 소산이므로, 그리고 나의 무의식은 첨예하게 집단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체주의의 등장은 건축에 대한 철학적 갈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이제 집은 해체 속에 있었다. 해체는 파괴가 아니었다. 해체는 변형이 아니었다. 해체는 승화(昇華)였다.

그리고 집은 길 위에 있었다. 너털너털 헤어진 집을 걸치고 걷는 걸음은 참으로 누추했다. 이 넘마조각이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집은 누추한 꼴새를 면하지 못하리라.

허물을 벗듯 나는 집을 벗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 지적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집을 그려달라고 했다.  
 그 집에서 그들은  
 꼭꼭 숨고 싶다고 말했다.  
 파도가 달려와 물었다.  
 “섬은 어디에 있는가?”  
 영원히 쉴 섬을 가리켜 달라고  
 갈기를 하얗게 세운 말은 외쳤다.  
 위대한 섬이 될 수 있는 집을 찾기 위해  
 나는 한 생애를 바쳤다.  
 그리고 오늘도 한 아름의 청사진을 안고  
 불켜진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전송한다.  
 내 집은 정거장에 있다.  
 희망의 수레가 왔다 갈 때마다  
 내 집은 조그맣게 바스르진다.  
 청사진 위에 이렇게 적어 두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속이는 것이 되리라.  
 “당신이 찾는 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거장의 그림일 뿐임을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비가 내렸다.  
 연애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포도(鋪道)는 번쩍거렸다.  
 불켜진 집들이 유명처럼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정거장이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정거장은 다만 옮겨갈 수 있을 뿐.  
 눈이 내렸다.  
 눈은 도처에서 흠뜨고 있는  
 감기지 않는 눈들을 감겨 주었다.  
 지상의 눈들  
 죽어도 죽을 수 없었던 눈들  
 감아도 감을 수 없었던 눈들을.  
 그것들을 두고 내 걸어가리.  
 하얀 길을 밟고 내 걸어가리.  
 눈에 덮혀 아득한 집들이 사라지는  
 마을 언덕을 넘어  
 불귀(不歸)의 지평선을 걸어가리.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집을 설계하러 왔다.  
 우리는 나란히 숲 속으로 들어갔다.  
 향기로운 나무를 베고 꽃을 따고  
 새소리 들리는 곳에 터를 잡았다.  
 나는 말했다. “집을 짓는 일은  
 지붕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벽을 만드는 일은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드는 일입니까?”  
 “집을 짓는 일은  
 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벽도 없는 집에  
 어디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당신 자신으로 들어가는 문이지요.”  
 “그리로 들어가면 진짜 나를 만나나요?”

“아닙니다. 진짜 나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자아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나요?”  
“차츰 더 깊어지는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침내 당신은  
자신의 사라짐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찾아왔다. 문을 만들려고.  
우리들은 숲길을 걸었다.  
같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문이었다.

- 이상 <집> 전문

빈터를 보면 나의 가슴은 뛰었다. 빈터는 나의 무지개였으며 나는 집을 짓는 시인이었다. 나는 집을 지었다. 그리고 집을 생각했다. 집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집은 마구 뛰어 다녔다. 그것은 백만의 얼굴을 가진 강아지 같았다. 집은 나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던져왔고 말을 걸어 왔다. 나는 집과 함께 뒹굴었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집은 부서졌다가 또 다시 세워졌다.

집은 하나의 자아이다. 정체성의 공간이다. 인간의 성숙은 자아의 구축에서 시작되고 인간의 생활은 집을 가짐으로 시작된다. 자아가 공격적인 환경에서 개체의 생존을 보존하는 방어 메커니즘이듯이 집도 위험한 세상에서 개인의 삶을 보존하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시작되었다. 자아는 확대되어 가족이 되고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 집은 확대되어 동네가 되고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되고 세계가 된다. 병든 자아는 폐쇄적 방어 메커니즘에 집착하고 건강한 자아는 개방적 성장 메커니즘으로 발전한다. 부정적 자아는 배타적 경향을 띄고 희망적 자아는 포용적 경향을 띈다.

자아의 껍질은 부단히 깨어져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알이 깨어져야만 더 큰 알의 껍질이 만들어지는 성장 메커니즘이 지속된다. 악은 이 자아가 성장을 멈추고 응축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각질화(角質化)된 자아가 악의 근원인 것이다. 인간의 무지, 탐욕, 공격성, 시기심, 분노와 폭력성은 자아, 즉 에고(ego)에 근거하고 있다.

집은 어떠한가? 그것이 완고한 에고의 형상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혐오스러운 것이며 결국 사라져야 할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승화를 지향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유기체의 아름다운 한 과정이며 한 시절, 사랑이 있었던 자리의 추억이 될 것이다. ㉮